

해외정상들 잇따라 한국불교 체험



조계사·봉은사 찾아 티종·연꽃 만들기 등 불교문화 체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해외정상들이 잇따라 조계사·봉은사 등을 내방했다. 봉은사에는 3월 25일 터키 총리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에 이어 28일 달리아 그리바우스키에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내방했다. 터키 경제부 장관 부인, 주한터키대사 부인과 동행한 에르도안 여사는 대중전 참여 후 경내 전각들을 둘러보며 한국불교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경관 3000여 정을 보관한 관전에서는 경관을 인 쇄하는 인경 체험을 했다. 에르도안 여사는 다래현에서 주지 진화 스님과 차담을 하는 동안 "한국의 예법과 정서가 터키와 비슷하다"며 연신 놀라움을 나타냈다. 에르도안 여사는 2시간가량 대중전 참여, 사찰투어, 인경 체험, 차담 등 불교문화 체험 후 봉은사를 떠났다. 그리바우스키에 대통령은 봉은사 종루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직접 티종을 해 보기도 했다. 같은 날, 조계사에는 페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내방해 대중전 등을 둘러봤다. 사진 좌측부터 터키 총리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그리바우스키에 리투아니아 대통령, 페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의 봉은사·조계사 방문 모습. **조동섭 기자**

“해인사주지 징계는 봐주기”

해인사정상화추진위, 초심호계원 문서견책 비판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세영)가 종법 위반 혐의로 징계 회부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고불암 감원 겸직)을 3월 26일 문서 견책한 데 대해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7일 성명서에서 “선각 스님에게 공판정지 5년으로 구형한 호법부의 주요 제소내용이 초심호계원에서 전부 문서견책으로 결정됐다”며 “초심호계위원회의 회의는 무법과 봐주기 그 자체로 중헌중헌이 실종되는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는 “아주 봐주기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선각 스님은 이번에 호계원에 제소된 사건 외에도 >해인사를 대형 납골사업장으로 만든 일 >대장경

축전 빌미로 해인사 동구 초입의 1만2000평을 24억원대에 매각한 일 >도지처분금과 단청불사금 등 해인사공금 25억원을 들어 선각 스님이 소유·운영하던 조주교 시텔 건물을 매입한 일 >소리원이라는 임대주택사업에 43억원대 이상의 해인사 공금을 사용한 일 >8년간 납골사업을 추진했으며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194억이라고 총무원에 보고하는 일 등으로 해인사 산증은 물론이고 온 종단의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189회 중앙총회에 상정된 ‘고불암부채현황감사촉구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해인사 산증에서 진행되는 부당한 납골사업의 실체를 밝혀주고 해인사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 문화부 사찰도서관 지원 공고

사찰도서관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사찰도서관 공모를 시행한다.

2012 부처님그늘사찰도서관 선정을 희망하는 사찰은 4월 20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lym_ar

t@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부는 접수된 사찰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사찰을 방문 실시하고 최종결정 후 개별통보할 계획이며,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된 사찰은 600만원 상당의 불서와 사찰도서관 현판을 기증 받게 된다. (02)2011-1779

이어나 기자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

5년간 최대 200억 지원 받아...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동국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8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지원대학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동국대 등 51개 대학을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동국대를 비롯해 성균관대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과부의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정은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뤄졌다. 동국대는 대학당 매년 20억~40억원이 지원되는 현장밀착형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동국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도심형 첨단융합산업 육성’을 목표로 동국대의 강점인 문학과 연극,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융합하는 CT(Culture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형 산학협력 사업이다.

특히 서울과 일산 캠퍼스를 활용해 서울 총무로에서 일산까지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CT 클러스터 ‘총무로 Culture Valley’ 육성 사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앞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원을 확충하고 산학협력 진화형 교원인사제도를 개편운영하는 한편, 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학과 및 트랙 교육을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예술-공학-경영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기업 연계 교육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산학협력 시스템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동국대는 KT와 현대정보기술, 엔게임 등 산학협력협의회 소속 400여개의 참여기업과 서울테크노파크,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현장과 밀착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선정은 동국대학교가 건학이후 수주한 국고지원사업중 최대 규모로 서울지역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동국대가 산학협력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라며 “현장밀착형 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동국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분야와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도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긴급재난서 생명 구하기 나서

조계종 복지재단,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이 긴급재난시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종선 스님과 이기환 청장은 3월 29일 전범회관 6층에서 긴급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조계종 자원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과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종선 스님은 “국내는 선진국에 비해 심정지환자와 중증의상환자의 소생률이 저조하다. 긴급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구축이 미약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망라한 생명존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환 청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청장은 “전문적인 구호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이번 협약은 종단이



종선 스님과 이기환 청장은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존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표한 5대 결사 중 생명결사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조계종 봉사대원의 10%만이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복지재단은 연말 개최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심폐소생술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봉사자 2명 정도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시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승 스님은 이어 “사찰 특성상 산증에 있는 사찰들이 많고 건물이나 문화재가 대부분 목재다.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량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문사찰의 화재예방 시스템을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기환 청장은 “양산 통도사에 소방차량을 1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문화재 화재 예방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500,000원

• 일방 마이크 V-606LC

◇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135,000원(일반형)
◇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12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